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바치는

# 십자가의 길

그림: Marko I. Rupnik

천주교 부산교구 청소년사목국

♫ 시작 성가 - 수난 기약 다다르니(1절)

수난 기약 다다르니 주 예수 산에 가시어

근심 중에 피땀 흘려 성부께 기도하시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수난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속과 사랑드리세

## ■ 십자가의 길 <시작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주님,  
저희와 저희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속삭임을 귀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오늘 저희 자녀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사랑에 서툰 많은 부모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차 예수님께서서 사형 선고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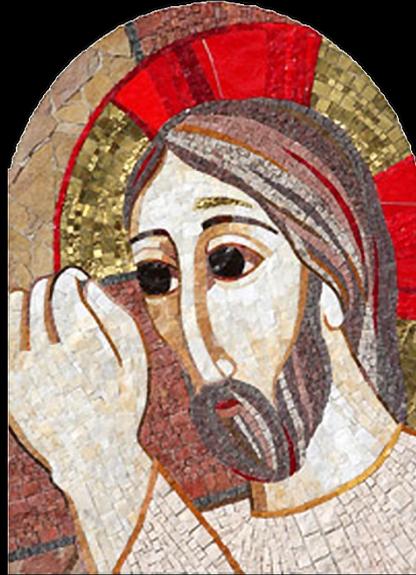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녀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제가 습관적으로  
매번 남 탓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자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부모인 제가 참된 신앙인의 삶을 모범으로 살아  
저를 통하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2차 예수님께서서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점점 제 욕심의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부담을 가지는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던 적도 많았고,  
마치 내 소유물인 듯 원하는 대로 강제로 맞추어 버리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내 감정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이의 등에 지운 제 욕심의 십자가를 벗겨주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3차 예수님께서서 기력이 떨어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고 재촉하며, 우리 아이에게는 물론  
제 마음에 깊은 상처까지 내고, 힘듦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고통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도  
함께 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4차 예수님께서서 성모님을 만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과연 나는 성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대하고 있는가? 아이가 어떤 마음일지 먼저 공감하며 살펴본 적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부터는 성모님과 같은 깊고 넓은 마음으로 아이에게 위로가 되며, 용기와 사랑을 심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무엇보다 어려울 때 함께 있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5처 시몬이 예수님을 도와 십자가를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도 저희 자녀와 영원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아,

갈등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예수님, 저랑 저희 자녀가

서로 다른 차이점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을 갖도록

저와 저희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자녀의 짐을 인내하며 나눠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6처 베로니카,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드림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제 아이가 울 때 다그치기만 할 뿐

눈물을 닦아 줄 손은 없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 속에

정작 아이는 없고, 고통뿐인 제 마음만 있었습니다.

주님, 제게도 베로니카와 같은 사랑뿐인 마음의 용기를 주시어

슬픔으로 눈물짓는 아이의 상처 받은 영혼을 닦는 손이 되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7처 기력이 다하신 예수님께서서  
두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넘어진 아이에게는 단호한 말과 눈길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다시 일어서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겠지요. 깨지고 부서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며 아이의 쓰러진 영혼까지도 일으킬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8처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하심을 목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자녀가 친구와 사이가 나빠질 때 진지하게 고민을 얘기하면  
저는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아이는 많이 힘들어하는데, 저는 사실 그 무게를 함께 이겨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서툴기만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제가 부끄럽습니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9차 예수님께서서 세 번째 넘어지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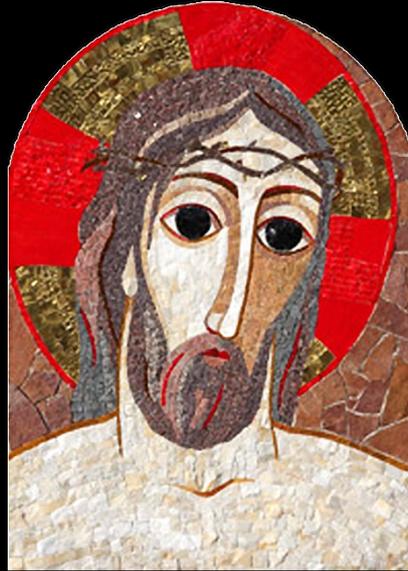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부모의 기대와 바램의 눈길이 아이에겐 몇 배 무게로 짓눌러  
여러 번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앞만 보고 가도록 채근했던  
저였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여린 어깨가 이제야 보이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저를 일으키시어 함께 걸어주겠노라  
위로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또다시 일어나신 것처럼, 저 또한  
일어나 저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한발 한발 나아가 보렵니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0차 예수님께서서 옷 벗김 당하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아이의 비난에 발가벗겨진 것처럼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의 철없는 투정에 억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이의 비난과 투정에  
부끄럽기도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화내지 않고 인내로 사랑을 키워가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1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의 무관심이 자녀의 십자가가 되어 고난의 길을 가지 않게 하소서.

저의 잔소리로 자녀를 모욕하지 않게 하소서.

저의 서늘한 눈빛이 자녀를 공포로 몰지 않게 하소서.

저의 싸늘한 침묵이 못이 되어 자녀를 찌르지 않게 하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2차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잠시 무릎을 꿇고 묵상 후 일어선다)



+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세상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 눈물은 끝없이 흐르고  
목청껏 아이를 불러도 답이 없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발 제 아이의 영혼을 보듬어 주소서.  
저를 대신해 사랑한다고 말해 주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3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림을 목상합니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저는 항상 걱정합니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부탁드릴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하는 후회를 아이가 모르도록 해 주소서.

주님, 제 아이의 영혼에 평화를 주소서.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어머니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상처 깊이 새겨주소서.

제14처 예수님께서서 무덤에 묻히심을 묵상합시다.



+ 주님께서서는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 (깊은 절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주님, 아이가 나약하지 않고 강해지기를 바랬습니다.

힘들고 아픈 이들보다 먼저 자신을 챙기라는 저의 이기심이

아이에게 이기심을 잉태하게 한 것 같아 제 영혼까지 아파 옵니다.

저와 저희 자녀들이 십자가의 희생에서 드러나는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무덤에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묵상한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 십자가의 길 <마침 기도>

주 예수님,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작은 죽음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과 더불어 기꺼이 죽으며

다시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제 위에 성가정을 세워

주님의 희생에 보답하는 작은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마침 성가 – 수난 기약 다다르니(2절)

무참하게 끌려가신 거룩한 우리 주 예수

뺨을 맞고 발로 채며 조롱을 받으시도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수난하고 죽으니

우리들은 통회하여 보속과 사랑드리세